

안전칼럼

문철필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장



겨울을 지나 봄 향기를 가득 담은 꽃이 피어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최근 안전에서도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기업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사 함께 위험성평가 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일터 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에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아 산업현장 현실을 보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향후 관련 법 정비가 이루어지겠지만 위험성평가를 근간으로 한 산재예방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사업장 스스로가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일터 내 위험성평가 현장실행력을 높이려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

기본적으로 노·사가 소통이 기본이다. 위험성 평가는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과 결정 등 전체 단계에서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위험요인 파악과 대처가 용이하고 자연스럽게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이뤄져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작업장 실제상황을 잘 아는 많은 사람이 여러 번 일터 내 유해·위험요소를 찾아본다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제거할수록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곧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시, 감독 등을 피하기만 하는 피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으로 산재예방을 예방하는 자세 변화가 책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눈여겨보아 편에서 공자가 말한 ‘知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처럼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즐기는 수준으로 가야 진정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에 있어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노동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하향식 의사결정으로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향식 의사결정은 사업주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놓치고 있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노동자의 안전 제안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함에 따라 일터 내 안전 확보는 물론 노·사간 화합에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희생을 잊었음을 기억해야 하고, 더 이상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 사고사망만인

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선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1972년에 제출된 로벤스 보고서에서 ‘법과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규제’, ‘자기 통제’, ‘자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제로 전환했고 이후 보건안전청(HSE)을 신설하고 노력한 결과, 산재예방에 있어서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독일에서도 조합주의 문화 및 업종별 중심노사자치입법으로 ‘재해예방규칙’을 제정해 산재감소 효과에 큰 성과를 보고 있다.

안전활동 지속 관심·참여를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도 없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주 등 안전주체들은 앞을 못 보는 봉사와 같다. 안전관리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작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참사가 보여주었고 있다.

누에가 댈때기를 벗으면서 힘겹게 나비가 되듯이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안전주체 모두가 개별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안전관리 주체들의 안전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참여는 사업장내 굳건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원동력이다.

‘위험을 보는 눈은 일터의 안전을 바꾸는 힘’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시각에서 작업장 내 위험성평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하루라도 빨리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이 진정한 OECD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임을 알아야 한다.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양육문화의 차이로 인한 부적응, 자녀 미래에 대한 걱정, 양육의 책임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자녀들의 경우도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식생활 문제와 사회적 편견, 배타적인 가족분위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물론 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는 그동안 건강가정과 다문화복지로 이원화돼있던 것을 2020년 2월 가족플러스센터로 통합했으며, 2023년 연간 위탁사업비는 39억 원으로, 178개의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재정 지원의 규모나 지원 프로그램 수의 문제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원했는가, 대상자가 얼마나 만족했느냐의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직접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전문가 집단들과 수차례 의견을 나누고 보니, 대부분 여가주요역의 특화된 사업이 아닌,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 지원이 전부였으며, 참여자의 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대다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지만 대부분 이주지역이 농·어촌 및 빈촌 지역이기에 이주여성들의 현실은 냉혹하다. 남편들은 이주여성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만 자신들은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또한 남편들의 대

다수는 고령자이고, 이주여성의 대다수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나이에 따라 생기는 세대 차이도 갈등과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고충을 상담해 줄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주여성들의 모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다문화가족의 주류가 되는 학생들을 포용하고 교육할 제도가 정비되고 그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가르칠만한 교사의 양성과 이중 언어 교육도 절실하다. 이중 언어 능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여수시의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국제교육원이 있어 이중 언어 교육이 가능해 교육 여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여수시는 도농 복합도시이며, 여수국가산단 등의 지역적 특성상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이다. 이제 다문화 가족은 외부인이 아니라, 여수 시민이자, 우리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 여수만의 특별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수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넘어 모국을 떠난 이주여성도 제2의 모국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이 시대의 주류가 될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교육과정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주여성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여수, 그래서 다문화가족도 행복한 최고의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다진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군 공항’ 광주·전남 대발전 전략 있어야

광주 군 공항이 전남지역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 다음달 중으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유력시되고, 함평에서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드러내면서 잠잠하던 군 공항 이전 표좌가 일순 지각변동을 맞은 듯 보인다. 지금껏 공식 언급을 자제해오던 김영록 지사까지 무안공항 활성화를 연계해 군 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지역민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함평 주민들은 광주시로 행정 편입과 경전철 건설, 주거·산업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주장하며 갈수록 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 입장에서선 적극 검토할 만하지만 전남도의 입장에서선 휘발성이 큰 문제여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함평이 광주시에 들어가고,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통합되지 않을 경우 무안국제공항은 국토 서남부 관문공항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운명을 맞는다. 하지만 무안 주민들은 여전히 군 공항 이전에 극렬히 반대해 전남도 컨트롤타워가 곤혹스럽다 하겠다.

반면 유치에 속도를 내는 함평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개최하며 미래 지역 및 인구소멸 방지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국비가 대폭 지원되면 몰라보게 지역 발전을 꿈꿀 수 있다는 기대다. 10조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신공항 이전지인 군위군처럼 개발의 호기를 맞게 된다. 벌써 지역민 사이에선 군 공항 이전지가 어디냐, 대상지가 확정되면 땅값이 치솟을 텐데 미리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부작용이 나온다.

광주는 빛그린산단과 함께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등이 동력을 얻고 바다를 품는 함평을 편입시킬 경우 해양 광역도시라는 면모를 갖추게 되지만 전남도와의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양, 장성, 나주도 광주 광역시로의 편입이 거론되는 마당이어서 더욱 그렇다. 주저하는 것처럼 군 공항 이전은 공항만을 옮기는 것이 아닌, 광주·전남 발전의 대전략을 짜는 일이므로 미래 안목과 해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내수 활성화, 관광 지원만으로 한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100만 명에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을,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유원시설, 철도, 항공, 캠핑장 등을 예약 할인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소비와 생계 지원,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전 통시장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 상향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의 내용이 담겼다. 4~6월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과 온·오프라인 마트 20% 할인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하고 5월에 1차 축제를 조기 개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삐를 다잡은 것은 환영할만 하다. 이번 조치로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03.9로 지난해 8월 이후 5% 안팎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수입이 줄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여행자들에게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수 위축의 근본 원인은 고물가·고금리이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민생 살리기 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가계소득과 고용확대를 어떻게 지원할 지 또한 고민해야 한다. 정치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악재 속 개막 앞둔 한국 프로야구

기지사첩



조혜원

문화체육부 기자

려져 해임됐다.

박동원과 친분이 두터운 장정석 전 단장은 ‘농담성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동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축를 직접 확인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따르면 장 단장은 박동원에게 최소 두 차례의 금품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번 뒤통수 요구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야구계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일각에서는 야구규약에 위배되는 허위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타 구단과 다른 선수, 또는 외국인 선수의 계약과정에서도 리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눈감아준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한국야구의 각종 악재와 일탈은 온전히 한 개인의 책임일까. 이는 리그 전체의 문제다.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 때까지 준법 교육과 관리 운영에 힘을 실지 못한 야구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O리그 개막이 하루 앞이다. 프로야구계를 강타한 두 사건은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악재 속에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된 프로야구가 분위기를 수습하고 팬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로스포츠 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도덕적 의식이 높아졌다. ‘결과만 가져오면 된다’가 아닌 본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됐다. 이 가운데 프로야구가 개막을 앞두고 많은 악재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 야구는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본선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당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모 구단 선수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리그에서 퇴출당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여기에 프로야구 실무 최고 책임자의 뒤통수 요구 파문까지 뒤늦게 알려져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KIA 타이거즈 전장정석 단장은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자유계약선수(FA) 협상 과정에서 ‘뒤통수’를 요구한 것이 알

기고

김채경

여수시의원



여수시는 지난 2009년 국내 여성친화도시 제2호로 지정됐으며, 2014년 재 지정됐다. 그리고 2022년 12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를 할 수 있는 여성들과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여수시의 2022년 기준 다문화 가구 수는 총 1,784세대로 총 가구 수의 약 1.3%이다. 가구원수는 5,541명이며, 이중 1,658명이 출생자녀로 구성돼 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으로 놓여온 지역 남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며 노동시장의 변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수시에도 여수산단과 놓여온 지역이 많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증가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생긴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불화로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매매혼 방식이 가져오는 국제결혼 과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외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적응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는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등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